

‘熱河日記’에 비친 연암 박지원의 지리관 일 고찰(I)

— 자연지리적 인식 · 문화지리적 인식 · 지역지리적 인식을 중심으로 —

손 용 태*

Ji-Won Park's Geographical View on Qing Dynasty in the Late 18th Century(I)

SOHN Yong Taek*

요약 :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연행기로 알려져 있는 열하일기 내용 가운데 「渡河錄」, 「盛京雜識」, 「馴迅隨筆」의 세편을 대상으로 지리적 인식측면에서 접근한 첫 연구이다. 연구목적은 18세기 후반 저명한 실학자인 박지원의 눈을 통한 중국(당시 청나라)의 자연지리적 · 문화지리적 · 지역지리적 인식은 어떠한가를 살피고자 했다. 청나라에 대한 기후와 날씨, 산세에 대한 인식과 압록강, 백두산, 안시성, 발해, 평양 등의 지명 유래설명을 통해 연암의 해박하고 정확한 자연지리적 인식을 알 수 있다. 청나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그들 복장에 대한 묘사를 통해 문화지리적 인식을 알 수 있고, 요동시가지와 산해관을 둘러보면서 서술한 지역지리적 인식은 지리학자의 날카로운 눈을 연상케 한다. 박지원의 열하일기를 통해 본 청나라의 지리적 인식을 통해, 당시의 청조(淸朝)는 조선사회의 문화, 제도를 크게 앞선 선진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고, 따라서 연암은 실학적 사고를 통해 앞선 문물을 배우고 소화시켜 우리 것을 선진화시킬 것을 강조하고 있다.

주요어 : 박지원, 실학, 열하일기, 지리적(자연 · 문화 · 지역)인식, 지리관

Abstract : This study searched for comparison with geography of Qing China, origin of geographical name, people's feature and costume, description on regional geography, and perception on locality on view of a geographer. Ji-Won Park, a renowned Korean scholar of practical learning on the late 18th century. This study on the first three chapters of his *Yorha Ilgi* - "Crossing the Amnok(Yalu) River(「渡江錄」)," "Several Records on Senyang(「盛京雜識」)," and "Writing Essays, Riding Horses(「馴迅隨筆」)," focusing on landscape of Qing China, inquiry on geographical name, feature and costume, and descriptions on locality, gives a glimpse on Park's geographical view on geography of Qing China. His writing style to compare landscapes between Korea and Qing China, full of his love for Korean landscape, is very delicate and clear. Although he sentimentalized when he passed through Bonghwang-castle(鳳凰城) in China, his subtle and beautiful writing explains that land and mountains in Han-yang(Seoul) are much more wonderful than those in China. His vivid depiction of landscape and weather on his way in Qing China is remarkable and explanation on geographical names like Parhae(渤海), Yoha(遼河), Taejaha(太子河), Senyang(瀋陽) etc. is enough to stimulate readers' curiosity on geography.

Key words : Ji-Won Park, Practical learning, Yorha Ilgi, Geographical view, Han-yang(Seoul), Bonghwangsung(鳳凰城), Parhae(渤海), Yoha(遼河), Taejaha(太子河), Senyang(瀋陽)

1. 서 론

1) 연구 동기

인조(仁祖) 15년 이후 조선조 말에 이르는 250여 년 동안 500회 이상의 사행이 청국(淸國)을 다녀왔다. 그리고 이러한 활발한 대외 교섭의 소산으로 현재까지 알려진 것만도 100여 종이 넘는 수많은 연행록이 쏟아져 나왔다. ‘열하일기’는 이와 같은 연행록의 전통을 배경으로 해서 출현할 수 있었다.¹⁾

연암 박지원은 정조 4년(1780) 삼중형 박명원(朴

明源)이 청나라 건륭제의 칠순 잔치에 가는 길에 동행하여 중원에 들어가는 도중 열하(熱河)에 이르러 그곳의 문인들과 사귀고, 연경(燕京)에 가서는 명사들과 교류하면서 거기서 들고 본 문물과 제도를 돌아와 ‘열하일기’로 엮었다.²⁾ 열하일기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압록강을 건너 청나라에 입국한 후 성경(盛京, 오늘날의 심양)을 거쳐 산해관(山海關)을 지나 북경에 도착하기까지의 말로만 들던 청나라의 발전된 문물과 제도를 실제로 접하면서 매우 흥분된 감회를 기록한 「渡江錄」을 비롯하여 「盛京雜識」, 「馴迅隨筆」, 「關內程史」 등의 글과 둘째, 북경에 잠깐 체류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부교수(Associate professor of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sohn@aks.ac.kr)

한 뒤 열하까지 갔다가 오면서 견문하고 관찰한 청조의 정치 외교의 실상을 기록한 『漠北行程錄』, 『太學留館錄』, 『還燕道中錄』 등의 열하여행의 일정과 견문을 기록한 글이다.³⁾ 본 연구에서 주목한 것은 전자의 세 편에 대한 내용까지이다.

압록강을 건너면서부터 연암은 말로만 듣던 청인들의 삶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는 그들의 발달된 문물제도를 부러운 마음을 가지고 세심히 관찰하였다. 연암은 중국의 문물제도를 배워와 우리나라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다. 당시 조선사회는 춘추대의(春秋大義)라는 명분론에 사로잡힌 유학자들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였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청조가 지배하는 중국은 오랑캐의 나라이므로 그들에게서 배울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하여 존명배청사상(尊明排淸思想)으로 무장한 사회였다. 연암은 현실적으로 백성들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

지 않는 춘추 의리론의 허상을 『열하일기』 도처에서 언급함으로써 그들의 시대에 뒤떨어진 자세를 간접적으로 풍자 비판하고, 한편으로는 그들이 대청인식을 새롭게 하길 기대했다.

연암은 중국을 여행하면서 명승고적의 비문(碑文) 주련(柱聯), 서화, 연극 등 그들의 문화예술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대하였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좋은 글귀나 문장을 채록하거나 발췌하기도 하였다. 끝없이 펼쳐진 요동 벌판을 지나면서 지금은 중국이 지배하는 이곳이 원래는 우리의 옛 고구려 땅이었음을 말하기도 하는 등 우리의 역사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드러냈다. 그리고 청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등 문물제도와 이에 따른 이용후생에 관해서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박지원은 조선 정조 때의 북학과 실학자로서 홍대용(洪大容), 박제가(朴齊家) 등과 함께 청나라의 문물을 받아들일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등 이용후생(利用厚生)하는 실생활을 강조하고 우리나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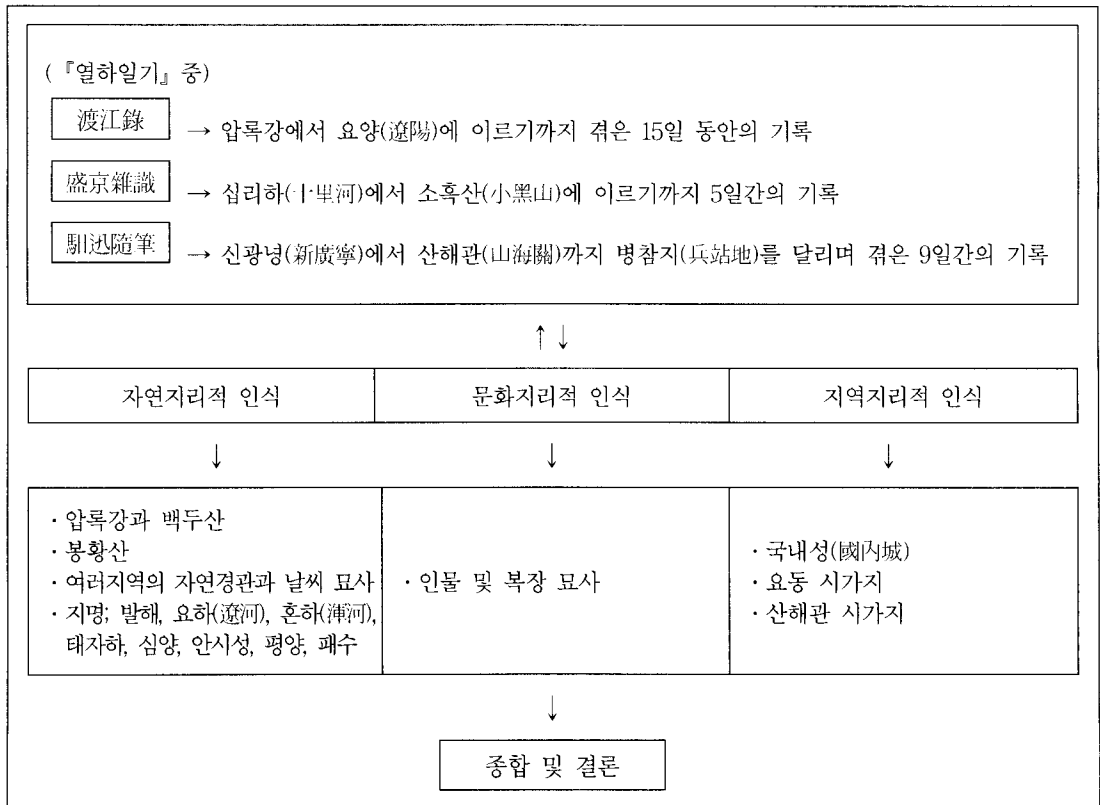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설계와 내용구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비판하고 개혁을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암의 인식이 열하일기에서 어떻게 표출되고 있는지를 살펴되, ① 그의 눈을 통해 바라보고 이해한 당시의 산수(자연경관)와 지명에 대한 내용, ② 당시 청조의 인물들과 복장에 관련한 내용, ③ 여행 과정에서 거쳐 가는 지역의 경관과 시가지의 묘사 등 지역지리의 성격 파악 등에 주안점을 두었다. 이들 주제에 한정하여 연암의 인식 세계를 들여다봄으로써 당시 淸朝의 자연과 인물, 지역 등을 비교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당시의 외부세계에 대한 지리적 사유(思惟), 즉 연암이 느꼈던 지리관을 음미 해 보고자 한다.⁴⁾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열하일기』의 내용을 통해 자연지리적 인식으로서 당시의 자연경관과 기후, 날씨 등에 대한 연암의 지리적 지식과 관(觀)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청나라의 지명들에 대한 연암의 설명을 바탕으로 그의 지리적 관심과 지리관을 살필 수 있다.

둘째, 문화 지리적 인식으로서 당시 청조(淸朝)의 각계각층의 인물들과 복장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 조사한다.

셋째, 여행 경로마다의 지역들에 대해 연암은 경관과 지역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살펴서, 이들 지역들에 대한 지역지리적 성격을 규명해 볼 수 있다.

넷째로, 이상의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18세기 후반 청조(淸朝)에 대한 연암의 지리관을 정리, 서술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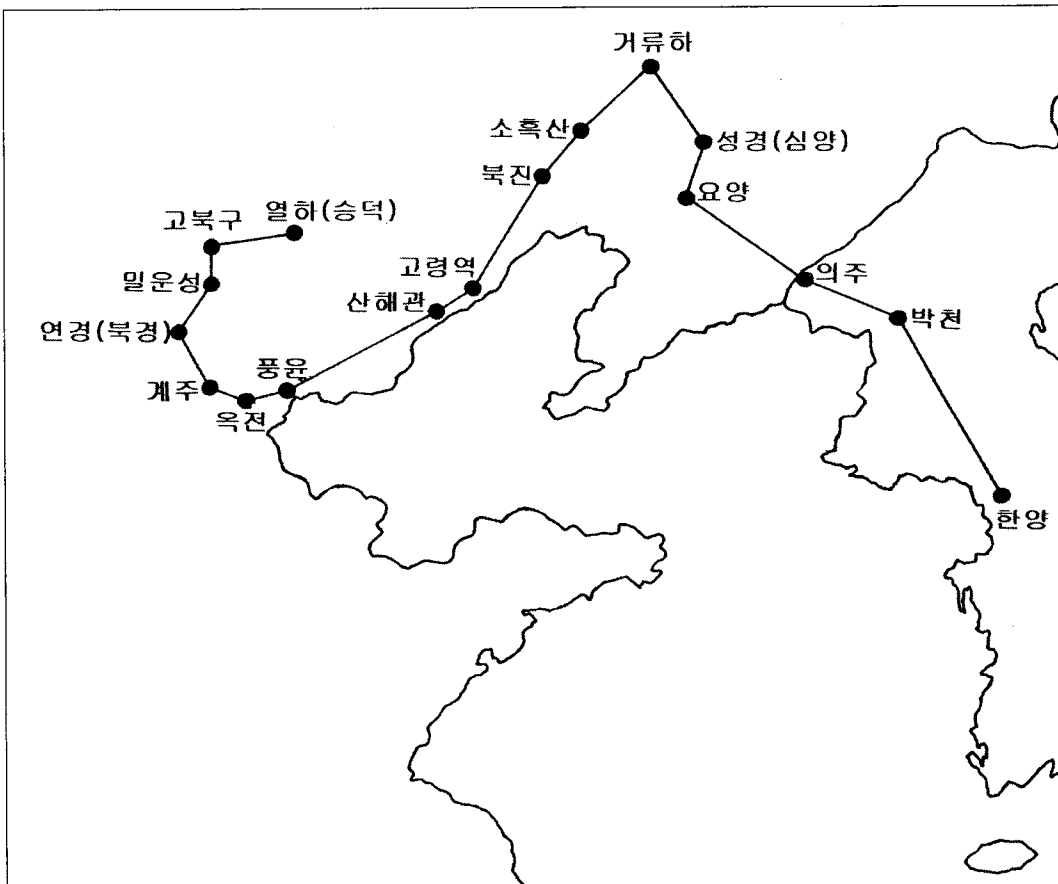


그림 2. '열하일기'에서의 연암의 여행 경로

한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열하일기』의 「渡江錄」, 「盛京雜識」, 「馴迅隨筆」등 세편이 수록된 번역본 전체를 꼼꼼히 읽으면서 지리내용과 관련된 내용들을 전부 발췌한다.

둘째, 발췌한 내용들을 자연지리적 인식, 문화지리적 인식, 지역지리적 인식 등 현대지리적 학문분류체계에 맞추어 내용을 분류한다.

셋째, 분류한 내용들을 분석하고 해석한다.

넷째, 이상에서 분류하고 해석한 내용을 종합하여 (청나라에 대한) 연암의 지리관을 요약 정리한다.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열하일기 전체를 다루지 못했고 「渡江錄」, 「盛京雜識」, 「馴迅隨筆」이 포함된 절반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룬 점이다. 나머지 절반의 번역본 제2권은 추후 연구과제로 남겨 놓는다.

둘째, 분석 내용에 대한 지리적 해석 및 설명에 객관화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였으나, 부분적으로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도 있음을 밝힌다.

2. 자연지리적 인식

1) 자연경관 인식

(1) 압록강과 백두산

『열하일기』의 첫머리는 압록강의 장관에 대한 인상적인 묘사로부터 시작되고 있음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의주(義州)에 머물던 일행이 방물(方物)이 모두 도착하기를 기다려 강을 건너려던 차에, 한 때의 호우로 크게 불어난 강물은 나흘이 지나도록 더욱 더 거세어질 뿐 물살이 원상태로 돌아가지 않았으며 나무와 돌이 함께 굴러 내리고 혼탁한 파도는 하늘과 맞닿을 듯이 날뛰었는데, 이는 천리나 떨어진 압록강의 발원지 백두산 일대에 장마가 진 때문이었다고 설명하는 부분은 섬세한 자연 현상의 관찰 안목을 바탕으로 한 서술이다. 압록강과 백두산에 대한 설명은 그가 얼마나 박식한가를 보여준다. 『唐書』, 『山海經』, 『皇輿考』, 『兩山墨談』 등의 4가지 서적을 고증하여 압록강의 명칭의 유래와 그 발원을 밝히고 있다. 한 가지 사물을 설명하는데 철저한 전거(典據)를 바탕으로 정확

히 논증을 시도한 것은 연암의 학자적 기질이 반영된 것이다.⁵⁾

6월 24일. 보슬비가 온종일 뿌리다 말다 하다.

(전략) 그동안 장마가 저 강물이 불어나 물살은 더욱 거세어 나무와 돌이 함께 굴러내리고, 탁한 물결이 하늘과 맞닿았다..... 『당서(唐書)』를 상고해 보면, “고려의 마지수(馬紫水)는 말갈의 백산(白山)에서 나오는데, 그 물빛이 마치 우리의 머리처럼 푸르므로 압록강이라 불렀다”. 하였으니, 백산이란 곧 장백산을 가리킨다.

『산해경(山海經)』에는 불함산(不咸山)이라 일컬었고, 우리나라에서는 백두산이라 일컫는다. 백두산은 모든 강이 발원되는 곳인데, 그 서남쪽으로 흐르는 강이 곧 압록강이다. 또 『황여고(黃輿考)』에는 “천하에 큰 물 셋이 있으니, 황하·장강·압록강이다.” 하였고, 『양산묵담(兩山墨談)』에는, “회수(淮水) 이북은 북쪽 가닥이다. 모든 물이 황하로 모여들기 때문에 강이라 이름한 것이 없는데, 다만 북쪽으로 고려에 있는 것을 압록강이라 부른다.” 하였다

.....(전략) 나는 말위에서 칼을 뽑아 갈대를 하나를 베어보았다. 껍질이 단단하고 속이 두꺼운게 화살을 만들 수는 없으나 붓자루를 만들기에 알맞을 것 같았다. 이때 놀란 사슴 한 마리가 보리밭머리를 나는 새처럼 빠르게 갈대를 뛰어넘어 일행이 모두 놀랐다.(『渡江錄』, 6월 24일, 나랏말씀7 열하일기, 술; 서울, 8-9쪽)

청나라 쪽 압록강 맞은 편 기슭의 갈대숲과 검은 진흙 바닥, 뛰노는 사슴 등 때묻지 않은 자연경관이 그림으로 다가오듯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어 당시의 압록강 변 자연환경을 잘 그려주고 있다.

(2) 봉황산

『도강록(渡江錄)』의 27일 일기내용 중 청나라의 봉황산을 바라보고 그 느낌을 적은 가운데 연암은 문득 비교하기를, 우리나라 금강산세의 느낌, 한양(서울)의 도봉산과 삼각산의 기운을 묘사하며 우리나라 서울(한양) 산세의 우월함을 잘 묘사한다.

(전략) 멀리 봉황산을 바라보니 온 산을 돌로 깎아 세운 듯 평지에 우뚝 솟아 있다. 그 모습이란 마치 손바닥 위에 손가락을 세운 듯하며, 반쯤 편 연꽃 봉오리 같기도 하고, 하늘가에 뭉

게몽계 떠도는 여름 구름의 기이한 자태와도 같아서 무어라 형용하기 어려울 정도이나 다만 맑고 윤택한 기운이 모자라서 흠이다.

내가 일찍이 우리나라 한양의 도봉산과 삼각산이 금강산보다 낫다고 한 일이 있다. 왜냐하면 금강산은 그 골짜기를 보건대, 이른바 일만 이천 봉이 그 어느 것이나 기이하고 높고 웅장하고 길지 않은 것이 없어서 짐승이 끄는 듯 새가 날아가는 듯 신선이 공중에 솟는 듯 부처가 도사리고 앉아 있는 듯이 음산하고 그윽함이 마치 귀신의 굴속에 들어간 것 같다. 일찍이 신원발(申元發)과 함께 단발령에 올라 금강산을 바라본 일이 있다. 때마침 끝없이 파란 가을 하늘에 석양이 비졌으나, 다만 창공에 달을 듯 빼어난 빛과 제 몸에서 우러난 윤태가 없음을 느껴 금강산을 위해서 한 번 긴 탄식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나서 배를 타고 상류에서 내려오면서 두미강(頭眉江) 어귀에서 서쪽으로 한양을 바라보니, 삼각산의 모든 봉우리가 깎아지른 듯이 파랗게 하늘에 솟구쳤다. 옅은 내와 맑은 안개 속에 밝고 곱게 아리따운 자태가 나타났다. 또 일찍이 남한산성의 남문에 앉아서 북쪽으로 한양을 바라보니, 마치 물위의 꽃이나 거울 속의 달과 같았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초목에서 이는 광택이 공중에 어리는 것은 곧 왕기(旺氣)이다.” 하였으니, 왕기(旺氣)가 곧 왕기(王氣)이고 보면, 우리 한양은 실로 억만년을 누릴 용이 서리고 범이 걸터앉은 형세여서, 그 신령스럽고 밝은 기운이야말로 당연히 범상한 산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이제 이 봉황산의 기이하고 높고 빼어난 형세가 아무리 도봉산, 삼각산보다 나은 점이 있다 할지라도 공중에 어린 광택은 한양의 모든 산에 미치지 못할 듯 하다. (渡江錄, 6월 27일, 나랏말씀7 열하일기, 술; 서울, 34-35쪽)

위의 글을 통해, 연암의 산을 보는 눈은 높게 치솟은 산세지형의 기이함만을 보는 것이 아니다. 일만 이천 봉 천태만상의 금강산도 최고로 치지 않는다. 한양의 산들처럼 창공과 어우러진 윤태 즉 왕기(旺氣)의 기운이 어린 산들을 으뜸으로 치고 있다. 즉 자연지형으로부터 발산되는 기(氣)를 더불어 증시하는 자연관을 알 수 있다. 청나라의 봉황산이 높고 웅장하지만, 이는 천태만상의 금강산만 못하며, 금강산은 또한 도봉 삼각산만 못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한양의 산들은 바위와 숲이 어우

러지며 발산되는 자연의 기(氣) 측면에서 으뜸이라는 것이다. 그는 삼각산을 두고 여러 측면에서 관찰하고 있다. 곧 한강 상류에서 배를 타고 내려오면서 관찰하고, 또 남한산성 남문에서 북쪽을 바라보면서 관찰한 것을 서로 다른 각도와 분위기에서 묘사하고 있다. 한 가지 사물을 두고 여러 측면에서 주도면밀하게 관찰하는 태도를 읽을 수 있다.

또한 당시 멀리서 바라 본 투명하도록 선명히 보이는 한양의 산들에 대한 묘사를 통해 한양의 산수가 대단히 깨끗한 환경이었음을 상상할 수 있다.

(3) 경관과 날씨

대부분의 여행록들은 여행 당시의 기후라든지 경과 지역의 자연 풍경에 관해서는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에 그치는 것에 비하면 ‘열하일기’에서는 도처에 연로의 이국적인 자연 풍경과 기상 변화를 놓치지 않고 상세히 묘사하고 있음은 돋보이는 부분이다.⁶⁾ 빈번히 나타나는 이러한 경관서술과 일기의 묘사는 이역만리의 낯선 땅을 여행하는 실감을 자아내는 데 매우 효과적이거나, 때로는 여행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사건들의 배경으로서도 대단히 훌륭한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새벽에 일어나 아침세수를 마치니 몹시 고단했다. 달이 막 지니 온 하늘에 총총한 별들이 모두 깜박거리고 마을 닭들이 번갈아 울어댄다. 몇 리를 못 가서 안개가 뽀얗게 끼어 큰 들이 삼시간에 수은(水銀) 바다를 이루었다. 의주 장사꾼 한 떼가 서로 지절이며 지나가는데, 그 모습도 몽롱하여 마치 꿈속에서 기이한 글을 읽는 것처럼 분명하지는 않으나 그 영결스러운 경지는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조금 뒤에 하늘빛이 환해지며, 길가에 늘어선 수많은 버드나무에서 매미가 한꺼번에 울기 시작한다. 저들이 저처럼 알리지 않아도 이미 낮더위가 몹시 뜨거운 줄은 알고 있다. 들판에 가득했던 안개가 점차 걷히고 먼 마을 사당 앞에 세운 것발이 마치 돛대처럼 보인다. 동쪽 하늘을 돌아보니, 붉은 구름이 용솟음치며, 붉은 해가 옥수수밭 저편에서 솟을 듯 말 듯 천천히 온요동별이 꼭 차게 떠오른다. 땅위에 오가는 말이며, 수레며, 조용히 서 있는 나무와 집 등 마치 털끝같이 자잘하게 보이는 것들이 모두 햇살을 받기 시작하였다. (『盛京雜識』, 7월 13일, 나랏

말씀7 열하일기, 술; 서울, 190-191쪽)

꼭두새벽에 숙소를 출발하여 신민등으로 향하던 도중의 여름날 농촌 풍경을 대단히 생생하게 그려 보이고 있다. 해뜨기 직전의 하늘에는 달마저 저버려 별빛이 더욱 반짝거리고, 이에 호응하듯 지상의 마을에서 연이어 들려오는 닭의 울음소리, 새벽안개 로 인해 ‘수는 바다’처럼 보이는 드넓은 요동 별관과 “꿈속에서 기서를 읽은 듯” 안개 속을 통과하는 일행들의 환상적인 모습, 날이 밝자 견혀가는 안개 바다 너머로 먼 마을의 깃대는 ‘뚝대처럼’ 드러나고, 한낮의 폭염을 예고하는 듯 연도의 수많은 버드나무로부터 일제히 들려오는 따가운 매미소리와, 끝없이 펼쳐진 옥수수 밭 위로 서서히 이동하며 이글거리는 붉은 태양, 이러한 선명한 이미지들을 절묘하게 구사함으로써 연암은 중국의 광활한 대지와 찌는 듯한 여름철 날씨, 그리고 짙은 안개와 폭염 속을 강행군하는 조선 사행의 고충을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묘사하고 있음은 대단히 사실적이다.

2) 지명

연암은 기행문 곳곳에서 지명의 유래를 설명하고 있다. 지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각종 관련 문헌을 들어 해당 지명의 기원, 유래 등을 밝혀 해설하는 박학다식한 기술태도는 그의 문학적 섬세함과 함께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탐구적 학자정신과 풍모를 느끼게 한다.

(1) 발해

발해는 봉천부 남쪽에 있다. 『성경통지(盛京統志)』에 이르기를, “바다의 옆으로 나간 것을 발(渤)이라 한다.”하였다. 요동벌이 2천 리 뻗었는데 그 남쪽이 곧 발해이다. 『盛京雜識』 7월 14일, 나랏말씀7 열하일기, 술; 서울, 214쪽)

(2) 요하(遼河)

요하는 송덕현의 서쪽에 있다. 곧 구려하(句驪河)인데 혹은 구류하(拘柳河)라고도 한다. 『한서』와 『수경(水經)』에는 모두 대요수(大遼水)라 하였다. 요수의 좌우가 곧 요동·요서의 경계이다. 당 태종이 고구려를 칠 적에 진펄 2백

여 리에 흙을 깔아 다리를 놓고 건너갔다. 『盛京雜識』 7월 14일, 나랏말씀7 열하일기, 술; 서울, 214쪽)

(3) 혼하(渾河)

혼하는 송덕현 남쪽에 있다. 일명 소요수(小遼水)요, 아리강(阿利江) 또는 현우락수(軒弩落水)라고도 한다. 물은 장백산에서 발원하여 태자와 합하고 다시 요수와 합하여 바다로 들어간다. 『盛京雜識』 7월 14일, 나랏말씀7 열하일기, 술; 서울, 214-215쪽)

(4) 태자하(太子河)

태자하는 요양 북쪽에 있다. 번문 밖 영길주(永吉州)에서 발원하여 번문 안으로 흘러들어, 혼하 요하와 합쳐서 삼차하가 되었다. 세상에 전하기를, “연나라 태자 단이 도망하여 이곳까지 온 것을 마침내 그의 머리를 베어 진나라에 바쳤으므로 후세 사람이 이를 가엾이 여겨 이 물 이름을 태자하라 하였다.”한다. 『盛京雜識』 7월 14일, 나랏말씀7 열하일기, 술; 서울, 215쪽)

(5) 심양

소심수(小瀋水)는 송덕현 남쪽에 있다. 동관(東關) 관음각(觀音閣)에서 발원하여 혼하로 들어간다. 물 북편을 양(陽)이라 하므로 심양의 이름이 대개 여기에서 연유된 것이라 한다. 『盛京雜識』 7월 14일, 나랏말씀7 열하일기, 술; 서울, 215쪽)

(6) 안시성

때마침 봉황성을 새로 쌓는데 어떤 사람이, “이 성이 곧 안시성이다.”한다. 고구려시대 방언에 큰 새를 ‘안시’라 하니, 지금도 우리 시골말에 봉황을 ‘황새’라 하고 뱀을 ‘배암(白巖)’이라 한 것으로 보아, “수당 때에 이 나라 말을 따라 봉황성을 안시성으로, 사성(蛇城)을 백암성(白巖城)으로 고쳤다”는 전설이 자못 그럴싸하기도 하다. 『渡江錄』, 6월 28일, 나랏말씀7 열하일기, 술; 서울, 61쪽)

(7) 평양

『당서』를 상고해 보면, 안시성은 평양의 거리가 5백 리요, 봉황성은 왕검성(王儉城)이라고도 하였고, 『地誌』에는 봉황성을 평양이라 하기도 한다고 하였으니, 이는 무엇으로 이름 한 것인지 모르겠다. 또 『地誌』의 옛날 안시성을 개

평현(蓋平懸)의 동북쪽 70리에 있다고 하였는데, 대체로 개평현에서 동으로 수암하(秀巖河)까지가 3백 리이고, 수암하에서 다시 동으로 2백 리를 가면 봉황성이다. 그러니 만일 이성을 옛 평양이라 한다면 [당서]에 이른바 5백 리라고 하는 말과 서로 부합한다고 여긴다.(『渡江錄』, 6월 28일, 나랏말씀7 열하일기, 술: 서울, 63쪽)

연암은 위와 같이 쓰고, 말하기를 당시 조선사회의 사대부 선비들은 단지 지금의 평양만 알고 있으므로, 기자(箕子)가 평양에 도읍했다 하면 지금의 평양으로만 믿고, 정전(井田)이 평양에 있다 하면 또한 지금의 평양으로만 믿으며, 기자묘가 평양에 있다하면 역시 지금의 평양으로만 믿어서, 만일 누가 봉황성이 곧 평양이라고 한다면 크게 놀랄 것이다. 더구나 요동에도 하나의 평양이 있었다고 하면, 이는 해괴한 말이라고 나무랄 것이라고 적고 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는, 오늘날 중국의 고구려사에 대한 '역사침략'이 논의되는 시점에서 생각해 볼 여지를 남겨주는 부분이다.

(8) 패수

그들(조선사회의 선비들)은 아직 요동이 본디 조선의 땅이며, 숙신(肅愼), 예(穢), 맥(貊), 동이(東夷)의 여러 나라가 모두 위만의 조선에 예속되었던 것을 모르고, 또 오랄(烏剌), 영고탑(寧古塔), 후춘(後春) 등지가 본디 고구려의 옛 땅임을 모른다. 아, 후세사람들이 이러한 경계를 밝히지 않고 무턱대고 한사군을 모두 압록강 이쪽에다 몰아넣어서 억지로 사실을 끌어다 맞추어 구구하게 분배하고 또는 패수(溟水)를 그 속에서 찾는데, 압록강을 가리켜 패수라 하고 혹은 청천강을 패수라 하며 혹은 대동강을 패수라 한다. 이리하여 조선의 강토는 싸우지도 않고 저절로 줄어들었다. 무엇 때문일까. 평양을 한 곳에 정해놓고는 그때그때의 사정에 따라 패수의 위치를 앞으로 내고 뒤로 물리고 했기 때문이다.(『渡江錄』, 6월 28일, 나랏말씀7 열하일기, 술: 서울, 63-64쪽)

한 가지 사물을 설명하는데 철저한 전거(典據)에 의하여 논증하는 글이란 그 내용을 정확히 밝혀야 하며 그것을 위하여는 '송자지유증(訟者之有證)'의 전개 방법을 따라야 한다는 박지원의 문장에 대한 생각을 잘 반영하고 있다. 이 같은 지적은 옛 고구

려의 영토에 대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은 스스로 좁혀서 말하지만, 실제로는 더욱 넓은 "평양"과 "패수"라는 지명을 예로 들어 설명한 것에서도 잘 나타난다. 당시 조선의 국경에 대하여 중국의 사서(史書)를 고증하여 우리나라 학자들의 잘못된 인식을 지적하고, 앉아서 국토를 좁혀버린 것을 개탄하고 있는 부분은 오늘날의 한·중 간의 역사논쟁과도 관계있는 내용이다. 연암의 이러한 일을 지적한 글속의 논리적 전개를 보면, 충분한 고증이 없이 추측에 의하여 고(古) 지명과 국경을 이해하려는 태도에 대하여 경계하고 있다. 이 같은 박지원의 지적들은 17~18세기라는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강한 자주 의식과 역사 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⁷⁾

3. 문화지리적 인식

연암의 열하일기에는 곳곳에 인물에 대한 묘사가 나온다. 당시 청조(淸朝)의 인물들을 날카롭고 섬세하게 살펴 그 특징을 기술하고 있어 꽤 흥미롭다.

(전략) 울타리에서 수십 보 되는 거리에 세 사신의 막을 치고 조금 쉬려니까 방물이 다 이르렀으므로 책문 밖에 쌓아 두었다. 못 되놈들이 울타리 안에 죽 늘어서서 구경을 하는데, 전부가 맨머리 바람에 담뱃대를 물고 손으로는 부채질을 하고 있었다. 어떤 녀석은 검은 공단으로 지은 옷을 입고, 또는 수화주(秀花紬), 생포(生布), 생저(生苧), 삼승포(三升布), 야견사(野繭絲) 등으로 지은 옷들을 입었으며, 바지들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였다. 허리에 주렁주렁 차고 있는 것이 많았는데, 수놓은 주머니 서너 개와 조그마한 칼에 모두 쌍아저(雙牙篋)를 꽂았고, 담배쌈지는 호리병처럼 생겼는데, 거기에다 꽃, 풀, 새 또는 옛사람의 이름난 글귀를 수놓은 녀석도 있었다.(『渡江錄』, 6월 27일, [나랏말씀7 열하일기(술)], 36쪽).....(중략) 잠시 후 어떤 소경이 어깨에 비단주머니를 걸고 손으로 월금(月琴)을 뜯으면서 지나간다.(『渡江錄』, 6월 27일, 나랏말씀7 열하일기, 술: 서울, 39쪽)

압록강을 건너면서 펼쳐지는 지역, 즉 중국의 동쪽 변두리 지방(=책문)에 대한 묘사이다. 청나라

사람들의 변발과 공단이나 각종 천으로 된 의복하며 주렁주렁 달린 주머니 및 장신구, 담배쌈지 등 당시의 그들 복색을 눈에 보이듯 그리고 있다. 변발을 한 것이나 공단 등의 옷감으로 된 옷을 입은 것은 우리와 차이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즐기고, 더운 여름철에는 우리처럼 부채를 사용한 점, 그리고 모시를 이용한 옷감 등이 우리와 유사했음을 알 수 있다.

마을이 가까워 올 때마다 군회를 시켜 나팔을 불게하고 마두 넷이 합창으로 권마성(勸馬聲)⁸⁾을 부른다. 그러면 집집마다 여인들이 문이 메어지도록 뛰어나와 구경들을 한다. 늙은이건 젊은이건 차림은 거의 같다. 머리에선 꽃을 꽂고 귀고리를 드리웠으며, 화장은 살짝 하였다. 입에는 모두 담뱃대를 물었고, 손에는 신바닥에 까는 배와 바늘, 실 등을 들고 어깨를 비비고 서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깔깔거리고 웃는다. 한(漢)족 여자는 여기서 처음 보는데, 모두 발을 감고 궁혜를 신었는데, 자색은 만주 여자만 못하다. 만주 여자 중에는 얼굴이 예쁘고 자태가 고운 이가 많았다.(『渡江錄』, 7월 9일, 나랏말씀7 열하일기, 술; 서울, 119-120쪽)

사행단 일행이 요동 시가지에 접어들면서 구경나온 한족(漢族) 여인들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머리에 꽃을 꽂아 장식하고 얇은 화장에 귀고리를 하고 어깨를 맞대어 뺨뺨이 연도에서 수다를 떨며 웃어대는 여인네들의 정경이 그림을 보는 듯 하다. 감발에 궁혜를 신고 있는 것과 여인네들의 노소할 것 없이 담배를 물고 있다는 표현은 열하일기 곳곳에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와 크게 다른 풍속 가운데 하나이다. 연암은 만주족 여인들의 자색이 한족 보다 뛰어나다고 보고 있다. 한편, 연암은 청나라에서 참외를 파는 노파에게 짹짹 속아 대단히 불쾌한 감정을 참았던 대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전략) 날이 저물어 먼 곳에 자욱이 번지는 연기를 바라보고 말을 채찍질하여 참(站)으로 달리는데, 참외밭에서 한 늙은이가 나와 말 앞에 엎드려 네댓 칸쯤 되는 초가집을 가리키며, “이 늙은 것이 혼자 길가에서 참외를 팔아 생계를 이어가는데, 아까 당신네 조선사람 4, 50명이 이

곳을 지나가다가 잠시 쉬면서 처음에 값을 내고 참외를 사 자시더니, 떠날 때는 모두 참외를 한 개씩 쥐고 소리를 지르며 달아나버렸습니다.”한다.(중략)..... 방금도 쫓아가니까 한 사람이 길을 막으며 참외로 저의 얼굴을 후려갈기는 바람에 눈에선 번갯불이 일고 얼굴에 아직도 참외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하며 청심환을 달라기에 없다고 하였다.(중략).....

나는 마침 목이 마르던 참이라 한 개를 꺾아 먹어보았다. 향기와 단맛이 이상하기에 장복에게 남은 네 개를 마저 사가지고 가서 밤에 먹고 하고, 창대와 장복에게 각기 두 개씩을 또 먹었다.(중략)..... 눈물을 흘려 가련한 빛을 보인 다음 참외 아홉 개를 팔고서 1백 문에 가까운 비싼 값을 내라고 때를 쓰니 매우 통탄할 일이다. 아니, 그보다도 우리나라 하정배들이 길에서 못되게 구는 것이 더욱 한스러운 일이다.

어두워져야 참(站)에 이르렀다. 저녁식사 후 참외를 내어 내원과 계합 등에게 주어 입가심으로 먹게 하고는 길에서 하인들이 참외를 빼앗았다는 이야기를 하니, 여러 마두들이, “도무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 외딴집 참외 파는 늙은이가 본디 간교하기 짝이 없어, 서방님이 홀로 떨어져 오시는 걸 보고 거짓말을 꾸며 짐짓 가엾은 꼴상을 지어 청심환을 얻으려던 것이었지요.”한다.

나는 그제서야 비로소 속은 것을 깨닫고, 그 참외 샀던 일을 생각하니 분하기 짝이 없다. 더구나 즉석에서 흘린 노파의 눈물은 어디서 그렇게 솟아났는지 모르겠다. 시대가, “그 늙은이는 아마 한인일 겁니다. 만주 사람들은 실로 그다지 요사스럽고 간악한 짓은 하지 않습니다.”한다.(『盛京雜識』, 7월 13일, 나랏말씀7 열하일기, 술; 서울, 195-197쪽)

7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심양 주변을 지나며 적은 기록 가운데 연암이 참외 파는 노파의 거짓말에 속아 바가지를 쓰게 된 사건을 서술한 대목의 일부이다. 이 글을 통해 청나라의 만주족들은 상대적으로 순박한 심성의 사람들로, 한족(漢族)들은 때에 따라 간교한 인물들도 있음을 비교하여 분류하고 있다. 다음은 심양 주변을 지나며 겪은 몽골사람들에 대한 묘사로서 그들의 사람됨을 잘 그려내고 있다.

(전략) 몽골사람들은 모두 코가 우뚝하고 눈

이 깊숙하며, 험상궂고 날래면서 사나운 풀이 인간 같아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옷과 병거지가 납루하고 얼굴에는 땀국이 줄줄 흐른다. 그런데도 버선은 꼭 신고 다닌다. 그들은 우리 하인배들이 맨 장강이로 다니는 것을 보고는 이상스럽게 여기는 모양이다. 우리 말뚱이꾼들은 해마다 몽골 사람들을 봐와서 그들의 성격을 잘 알기 때문에 서로 희롱하면서 길을 간다. 채찍 끝으로 그들의 병거지를 통겨서 길가에 버리기도 하고, 공처럼 차기도 한다. 그래도 몽골 사람들은 웃고 성도 내지 않으며, 두 손을 펴면서 부드러운 말씨로 돌려달라고 사정한다. (『盛京雜識』, 7월 10일, 나랏말씀7 열하일기, 술; 서울, 123쪽)

몸에 두르는 의상이 특이하고 지저분하며 화를 낼 줄 모르는 몽골사람들에 대한 묘사를 실감나게 그리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 당시 청나라 인물들의 됃됨이를 간접적이지만 눈에 본 듯이 느낄 수 있다. 이처럼 『열하일기』에서 연암은 중국의 풍토와 각종 문물뿐 아니라, 바로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에 대해서도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당시 청조사회의 각계각층에 속하는 다양한 인간 군상을 실로 생생하게 그리고 있다. 『열하일기』 곳곳에서 조선 사행과 동행한 중국 측 통역관들의 오만 불손하며 경망스러운 행태를 묘사하기도 하였는데, 그중 가장 개성 있게 형상화되어 있는 인물은 쌍림(雙林)이다. 『일신수필』 7월 17일자 내용에서 연암은 쌍림이 정사(正使)에 대한 결례 문제로 항의하는 박내원(朴來源)과 언쟁을 벌이는 장면과, 그가 연암과 사귀고 싶어 접근해오는 과정, 그리고 연암의 하인 장복과 장난삼아 서로의 언어를 바꾸어 주고받는 우스꽝스러운 대화를 중심으로, 쌍림의 일면 교활하면서도 천진스러운 성격을 통해 중국 통관(通官)의 한 전형을 속속들이 그려내고 있다.

호행통관 쌍림은 곧 조선 수통관 오림포(烏林圃)의 아들인데, 진은 봉성에 있다. 말은 호행이라 하지만 저는 태평차를 타고 뒤를 따를 뿐이며, 그의 행동거지는 우리 사행의 소관 밖이다. (중략)..... 내가 책문에 든 지 10여 일이 되어도 쌍림의 꼴을 보지 못했다. (중략)

사행이 갈 때마다 사무를 맡은 역관이 공비로 은 4천 냡을 가져와서 5백 냡은 호행장경에

게 주고, 7백 냡은 호행통관에게 주어 차상과 역관비에 쓰게 되어 있다. 그러나 실상은 한푼도 쓰는 일이 없이 상사와 부사의 주방에서 둘러가며 두 사람을 먹인다.

쌍림은 사람됨이 교활하고 조선말을 잘한다고 한다. 앞서 소황기보에서 점심을 먹을 때 여러 비장·역관들과 둘러앉아서 한담을 하노라니, 쌍림이 밖에서 들어오자 여러 사람이 모두 반겨 맞았다. 쌍림이 부사의 비장 이상제와 간곡히 이야기하고 또 내원을 향하여 말을 걸었다. 그것은 이 두 사람이 두 번째 길이어서 구면이기 때문이다. 내원이 쌍림에게, “내, 영감님께 섭섭한 일이 있소.” 하니 쌍림이 웃으면서, “무슨 섭섭한 일입니까?” 한다. 내원은 “상사또(上使道)께서는 비록 작은 나라의 사신이라 할지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정일품 내대신(內大臣)이므로 황제께서도 각별히 예우하시는데, 영감님은 대국 사람이지만 조선의 통관이고 보면 우리 사또에게 의당히 체면을 지켜야 할 것인데, 두 사또께서 말을 갈아타실 때나 길가에 가마를 멈추실 때마다 영감님들은 마땅히 수레를 멈추고 기다려야 할 일인데도, 그러지 않고 번번이 그냥 수레를 몰아 지나면서 조금도 거리낌이 없으니, 이 무슨 도리요. 이래서 장경도 영감님들을 본받으니 더욱 한심한 일ियो.” 하니, 쌍림이 발끈 성을 내며,

“그것은 당신이 모르는 말이오. 대국의 체모가 당신네 나라와는 훨씬 다르오. 중국에서 칙사가 가면 당신네 나라 의정대신이 우리들을 평등하게 대접하여 말도 서로 공경해서 하는데, 이제 당신이 새로이 체모를 지어내 나더러 회피하란 말이오?” 한다. 그러자 역관 조학동이 내원에게 눈짓하여 더 다투지 말라 하였으나, 내원은 한층 더 소리를 높여, “그러면 영감님의 종놈은 어느 존전이라고 손에 매를 낀 채 의기가 양양하게 지나간단 말이오. 그건 해괴한 것이 아닙니까. 이제 다시금 그런 걸 보면 내 곧 곤장을 때릴 테니 영감님은 괴이하게 여기지 마시오.” 하니 쌍림은, “그것은 아직 못 보았소. 만일 내가 보기만 하면 단매에 처치해 버리겠소.” 한다. 그는 조선말을 잘한다지만 가장 서투르고 다급하면 다시 북경 말을 쓰곤 한다. 공연히 돈 7백 냡을 허비하니 실로 아깝기 그지없다. (『馴汎隨筆』, 7월 17일, 나랏말씀7 열하일기, 술; 서울, 259-260쪽)

『열하일기』에서 연암은 청조의 지배층에 속하

는 인물들에 못지않게 하층 민중들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묘사하고 있다. 조선 사행이 거쳐 간 숙소들의 주인과 그 가족, 심양의 예속재와 가상루의 상인들을 비롯한 연도의 각종 장사꾼들, 설서인(說書人)과 요술사 등 직업적인 연희인들, 시골의 훈장, 점장이, 도사, 승려, 창기, 하녀, 거지 떼 등등 여행 도중에 마주친 다양한 신분의 중국 민중들을 각기 개성 있는 인물들로 그려내고 있다. 이 밖에도 나귀 떼를 몰고 가던 시골 노파며, 한 곡 더 부르라는 손님의 요청에 눈을 흘기며 “야채 사러 왔수? 더 달라게”하고 쏘아붙이던 진자점(榛子店)의 창기 유사사(柳絲絲) 등 하층 여성들에 대해서도 기탄없이 생생하고 구체적인 묘사를 보여주고 있다.

4. 지역지리적 인식

1) 집안(集安)현 국내성(國內城)

『渡江錄』편에 집안(集安)현 국내성(國內城)에 대한 당시 묘사가 다음과 같다.

(전략) 홀로 높은 언덕에 올라 사면을 바라보니, 산은 곱고 풀은 맑으며, 정경이 특 특이고 나무는 하늘에 닿을 듯한데, 그 속에 은은히 큰 마을이 자리 잡고 있어 개와 닭소리가 들리는 듯하며, 토지가 비옥하여 개간하기에도 알맞을 것 같다. 패강(溘江) 서쪽과 압록강 동쪽은 이와 비교할 만한 곳이 없으니, 이곳이 큰 진이나 부(府)를 설치하기에 꼭 알맞겠건만, 너나없이 모두 이를 버려 두어 아직까지 빈 땅으로 있다. 어떤 이는 이르기를, “고구려시대에 이곳에 도읍한 일이 있었다.” 하는데 이것이 이른바 국내성(國內城)이다. 명나라 때에 진강부(鎭江府)가 되었었는데, 청나라가 요동을 함락시키자 진강 사람들이 머리 깎기를 싫어하여 어떤 사람은 모문룡(毛文龍)에게로 가고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로 귀화하였다. 그런데 그 후 우리나라로 온 사람은 청나라의 요구에 따라 모조리 돌려보냈고, 모문룡에게로 간 사람들은 대부분 유해(劉海)의 난리 때 죽었다. 이리하여 버려진 땅이 된 지 벌써 1백여 년이나 지나 쓸쓸하고 산 높고 물 맑은 것만 눈에 들어올 뿐이다.(『渡江錄』, 6월 24일, 나랏말씀7 열하일기, 술; 서울, 25쪽)

연암이 살피기에도 집안현 국내성 지역이 진이나 부(府)가 들어서기에 충분한 곳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날 집안현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당시 연암이 묘사하던 모습이 더욱 현장감 있게 실감된다.

2) 책문 안 시가지, 책문 밖 들녘 묘사

당시 청나라 각 고을 이르는 곳마다 연암은 주민들의 생활모습과 건축물들의 모습, 건축재료 등에 대한 관찰을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 다음은 봉황성의 변두리 책문⁹⁾ 안을 들여다보고 묘사한 대목이다.

(전략) 책문 밖에서 다시 책문 안을 바라보니, 수많은 민가들은 모두 들보 다섯 개가 높이 솟아있고 띠 이엉을 덮었는데, 집 등성마루가 휘칠하고 문호가 가지런하며 네거리의 쪽 곧아서 양쪽 거리가 마치 먹줄을 친 것 같다. 담장은 모두 벽돌로 쌓았고, 사람이 탄 수레와 화물 실은 수레들이 길에 즐비하며, 진열해 놓은 그릇들은 모두 그림을 넣은 자기들이었다.(『渡江錄』, 6월 27일, 나랏말씀7 열하일기, 술; 서울, 38쪽)

(전략) 서남쪽은 탁 트여서 평원한 산과 담담한 물이 있었다. 우거진 버들에 그들은 짙은데, 띠 지붕과 등성한 울타리가 숲 사이로 은은히 보이며, 가없이 푸른 방축 위에는 소와 양이 여기저기서 풀을 뜯고 있다. 멀리 강에 걸린 다리에는 행인들이 혹은 짐을 지고 또는 무엇을 끌고 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자못 길가는 피로를 잊을 것만 같다.(『渡江錄』, 6월 27일, 나랏말씀7 열하일기, 술; 서울, 49쪽)

민가들은 대들보가 높고 띠로 이은 이엉을 덮었으며, 등성마루가 휘칠하고 문호가 가지런하다는 표현으로 보아 우리의 민가들보다 규모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마을의 거리는 바둑판처럼 반듯하게 길들을 내어 놓았고 담장들은 구운 벽돌들로 쌓아 역시 질서정연함을 알 수 있다. 거리에는 인력거와 화물 수레들이 즐비하게 차 있고, 진열해 놓은 그릇들은 그림들이 아름답게 수놓아진 자기들로 차 있어 매우 화려한 시가지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한편, 책문 밖 들녘에는 소와 양을 풀어먹이고 있다. 우리나라 농촌 들녘의 한가로운 모습과도 견

줄 수 있는 대목이다. 책문 안(마을 안)과 바깥 들녘의 지리적 정경들이 눈에 선하게 잘 묘사되고 있다.

(전략) 천천히 걸어서 문밖으로 나섰다. 그 변화하고 사치스러움이 비록 연경인들 이보다 더할 수 있을까 싶다. 중국이 이처럼 변영된 나라인 줄은 참으로 뜻밖이었다. 길 좌우에 즐비하게 늘어선 노점들은 모두 아로새긴 들창에 비단 장막을 드리운 문, 그림을 그린 기둥, 붉게 칠한 난간, 푸르게 단장한 주련(柱聯)¹⁰⁾, 그리고 황금 빛깔의 현관 등이 눈부시게 찬란하다. 그 안에 펼쳐놓은 것은 모두 그 나라의 진기한 물건들이다. 변문의 보잘 것 없는 이 땅에 이처럼 정치하고 아담한 취향이 있었다니.....(『渡江錄』, 6월 28일, 나랏말씀7 열하일기, 술; 서울, 56쪽)

변문(책문)의 시가지를 돌아보며 연경(=북경)보다 상대적으로 시골인 마을의 변영된 모습을 잘 그리고 있다. 아름답게 장식한 노점들의 실내외 장식은 당시 우리나라의 그것과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음에 연암은 놀라고 있었던 것 같다.

3) 요동 시가지

요양으로 가면서 요동의 시가지에 접어들게 된다. 시가지의 연속됨이 갈수록 더욱 커지는 대처임을 잘 그려내고 있다.

9일, 개었다가 몹시 더웠다.

새벽 서늘함을 타서 먼저 길을 떠났다. 장가대(張家臺)와 삼도파(三道巴)를 거쳐 난니보(爛泥堡)에서 점심을 먹었다. 요동 땅에 들어서면서부터 마을이 끊이지 않고 길의 넓이가 수백 보나 되며, 길 양편에는 수양버들을 죽 심었다. 집이 즐비하게 늘어선 곳에는, 마주선 문과 문 사이에 장마 때 고인 물로 가끔 큰 못이 저절로 이루어졌다. 집집마다 기르는 거위와 오리가 수없이 그 위에 떠서 놀고, 양편 촌집들은 모두 물가의 누대처럼 붉은 난간과 푸른 현합이 좌우에 영롱하여 은연중에 강호(江湖)를 방불케 했다.(『渡江錄』, 7월 9일, 나랏말씀7 열하일기, 술; 서울, 119쪽)

요동 땅의 대로변에는 집들이 연이어 있고, 마을

은 연속적이며 가축으로 집집마다 거위와 오리를 키우고 있다. 촌락의 가옥들이지만 붉은 난간과 푸르게 칠한 기둥으로 번듯한 모습들이 중원의 강호를 연상케 할 만큼 시가지화 되어있는 모습을 잘 묘사하였다.

(전략) 요양에 들어오면서부터 뽕나무와 삼밭이 우거지고 개와 닭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이토록 1백년 동안이나 무사하긴 하나 청나라 황실로서는 오히려 한낱 짜증이 남아있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몽골의 수레 수천 채가 벽돌을 싣고 심양에 들어오는데, 수레마다 소 세 마리가 끈다. 그 소는 흰 빛깔이 많으나 간혹 푸른 것도 있으며, 찌는 듯한 더위에 무거운 짐을 끌고 오느라 코에서 피를 뺏는다.(『盛京雜識』, 7월 10일, 나랏말씀7 열하일기, 술; 서울, 122-123쪽)

열하일기 『盛京雜識』 에 나오는 심양 땅에 접어들면서의 이야기이다. 마을 들판에 뽕나무와 삼밭이 많고 집집마다 개와 닭을 흔히 키우고 있다. 뽕나무와 삼나무를 가꾸고 닭, 오리, 개 등을 가축으로 키우는 것은 우리와 닮은 데가 있다. 몽골사람들이 소가 끄는 수레를 이용하여 벽돌을 심양으로 실어 날라 대처의 수요에 충족시키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당시 청나라 주민 생활에 벽돌의 쓰임은 대단히 광범위하고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심양은 청조에 있어서는 수위의 도시로서, 대소비지로서 물품과 건축자재의 소비량은 대단했음을 알 수 있다.

요양에서부터 길가에 버드나무를 수없이 많이 심어서 그 우거진 그루터기에 더위를 잊을 만 했다.....(중략)....멀리 버드나무 그늘 밑을 바라보니 수레와 말들이 구름같이 모여 있다. 말을 재촉하여 그곳에 이르러 잠깐 쉬기로 했다. 장사꾼 수백 명이 짐을 내려놓고 땀을 식히고 있었다. 어떤 이는 버드나무 그루터기에 걸터앉아 옷을 벗어놓고 부채질을 하며, 어떤 이는 차와 술을 마시며, 어떤 이는 머리를 감기도 하고 깎기도 하며, 골짜도 치고 팔씨름도 한다. 짐 속에는 모두 그림을 그린 자기가 있고, 또 껌을 벗긴 수숫대로 조그맣게 누각 모양을 만들어서 그 속에다 각기 우는 벌레나 매미 한 마리씩을 넣은 것이 10여 점이나 되며, 어떤 것은 향아리

에다 빨간 벌레와 파란 마름을 넣었는데, 빨간 벌레는 물위에 둥둥 뜬 것이 마치 새우 알처럼 작다. 이는 고깃밥으로 쓰인다.

수레 30여 채에는 모두 석탄을 가득 실었다. 술도 팔고 차도 팔며, 떡과 과일 등 여러 음식을 파는 사람들이 모두 버드나무 그늘 밑에 걸상을 죽 늘어놓고 앉아 있었다. 태평차(太平車) 한 채에 두 여인이 탔는데, 나귀 한 마리가 끌고 간다. 나귀가 물통을 보자 수레를 끈 채 통으로 달려든다. 그 여인들 중 한 사람은 늙은이고 또 한 사람은 젊은이였는데, 앞을 가렸던 발을 걷고 바람을 쏘이고 있다. 두 여인 다 피끄리 무늬가 놓인 파란 옷에 주황 빛깔의 치마를 입고, 옥 잠화, 패랭이꽃, 석류화로 머리를 야단스럽게 꾸몄다. 아마 한족(漢族) 여자인 듯 하다. (『盛京雜識』 7월 10일, 나랏말씀7 열하일기, 술; 서울, 127-128쪽)

마을 한길 가의 버드나무 가로수가 보이는 듯하다. 버드나무 그늘을 의지하여 더위를 피하기 위한 사람들이 모여들고 각종 장사치와 사람들의 활동상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여러 군데의 인용 기록에서 보듯, 청나라 여인들은 노소를 가리지 않고 머리를 생화로 장식하는 것은 우리와 크게 다른 풍습임을 알 수 있다.

4) 산해관의 시가지

연암은 여러 곳, 즉 국내성, 책문, 요동 시가지 등을 두루 거쳐오며 청조의 발전된 변화한 시가지 모습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었다. 그러나 산해관에 이르러 장성의 장대함을 보고, 그리고 더욱 발전된 경관을 대하면서 더욱 놀란다. 그리고 장성을 보고는, 그가 지금까지 보아 군사용 방어시설물이나 숨씨가 모두 산해관에서 본뜬 것들임을 알았다.

십자가에 성을 둘러었는데, 사면에 둥근 문을 내고 그 위에는 3척의 높은 다락을 세웠으며, ‘상예부상(祥霧榑桑)’이라는 현판을 붙였는데, 이는 용정제의 글씨다. 원수부(元帥府)의 문 밖에 돌사자 둘을 앉혔는데, 높이가 각기 두어 길이나 된다. 여역과 시가의 변화함이 성경보다 낮고 수레와 말이 가장 많은데, 청춘 남녀들이 더욱 화려한 화장을 하였으니, 그 변화롭고 풍부함이 지금껏 보아온 가운데 제일이라 하겠다. 대개

이곳은 천하의 큰 관인데, 이는 아마도 서쪽으로 북경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인 듯하다.

봉성에서부터 1천여 리 사이에 걸쳐 보니 둔이나 소니 역이나 하여 나날이 성 몇 군데씩은 보아왔지만, 이제 장성을 보고 나니 그들의 시설이나 숨씨가 모두 이 관에서 본뜬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 관에 비하면 어린 손자뻘밖에 되지 않는다. (『馴述隨筆』, 7월 23일, 山海關記, 나랏말씀7 열하일기, 술; 서울, 295-296쪽)

연행 길에 여러 곳을 거쳐 오고 그곳의 풍물들과 비교해 볼 때, 연경에 가까운 산해관 시가지의 변화함이 가장 앞선다는 느낌을 적고 있다.

5. 종합 및 결론

본 연구는 18세기 후반 당시 우리나라의 저명한 실학자인 박지원의 눈을 통해 중국(청나라)에 대한 자연지리적 인식, 문화지리적 인식, 지역지리적 인식의 측면에서 그의 지리관을 살피고자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산세, 기후, 날씨 등의 자연환경과 지명, 청조의 다양한 사람들의 인물됨과 복장, 그리고 경유지역들의 지리적 자연경관 및 시가지 묘사, 관련 내용 및 여러 지역들에 대한 연암 박지원의 소감 등을 바탕으로 하여 당시의 청나라에 대한 지리관을 살폈다.

본 연구에서 소개된 열하일기 내용 속의 세 편은 전체 내용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박지원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한 눈에 알 수 있게 해주는 글들이다. 『渡河錄』, 『盛京雜識』, 『馴述隨筆』의 세편에서 연암은 청나라의 여러 가지 환경과 문물에 대한 이용후생적인 설명, 그리고 관찰에 의한 평이 독자의 흥미를 끈다. 그가 전공측면에서 전문가가 아니지만 지리적인 관점에서도 정치하고 정확한 안목을 지녔다. 즉, 청나라의 자연에 대해서 관조하며 치밀하게 살폈으며, 당시 조선과 청나라의 산수를 비교하여 그 특징을 잘 드러내었다. 청나라의 봉황성을 지나면서 살핀 자연경관과 한양(서울)의 아름다운 산세와 지기(地氣)가 다른 것임을 자연에서 뿜어나오는 기(氣)의 유무를 기준으로 설명한 것은 그의 풍수적 식견과 관점을 보여준다. 여정 곳곳에서의 청나라의 경관과 날씨에 대해서 지리학자 이상으로 섬세하고 치밀하게 묘사

한 부분은 대단히 현장감이 있어, 그곳의 일기를 피부로 느낄만큼 절묘하다. 청나라의 광활한 대지와 찌는 듯한 여름철 아침의 짙은 안개와 한낮의 폭염 등을 그림 그리듯 표현하였다. 발해(渤海), 요하(遼河), 혼하(渾河), 태자하(太子河), 심양(瀋陽), 안시성 등에 대한 연원과 유래를 밝힌 지명 설명은 매우 탐구적이며 지리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만족시키기에 충분하다.

한편, 청조(淸朝)의 여러 인물 및 복장에 대한 소개는 당대의 청조 문물과 제도에 대한 지리적 인식을 분명하게 해준다. 청조를 구성하는 만주족, 한족(漢族), 몽골인 등 각계각층의 인물들에 대한 외모와 의상, 성격, 사람 됨됨이 등에 대한 비교와 평가는 문화지리적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연행의 여정에서 거쳐 가는 각 지역들에 대한 지역지리적 인식과 묘사는 매우 사실적이고 정치하여 당시 청조의 마을이나 도시들에 대한 경관이 머리에 그려질 듯 하다. 국내성에 대한 그의 서술을 통해 그곳 입지 조건을 자연스럽게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책문의 안과 밖에 대한 묘사, 요동 시가지와 산해관에 대한 놀라운 눈으로 바라본 관찰력 등은 매우 사실적이다. 연암 박지원이 바라보고, 설명한 당시 청나라의 자연경관과 지명, 다양한 인물들의 성격 묘사와 복장의 비교 설명, 그리고 연행과정의 경유지역들에 대한 기후와 날씨, 시가지 묘사 등은 훌륭한 풍물지리학자의 눈에 버금간다. 수세기 전의 청나라 모습이 눈에 잡히는 것 같다.

요컨대, 열하일기를 통해 본 당시 청나라의 모습은 조선사회보다 훨씬 개어 있는 선진지역이었다. 조선사회가 갇혀있는 폐쇄적 사회였던 것에 비해 청조는 열린사회로서, 비교대상이 아닌 훌륭한 큰 나라이며 큰 지역인 대저였다. 본 연구주제만을 놓고 보면, 단지 연암이 청조의 그것 보다 우위에 놓고 찬미하는 대상은 조선의 강산이었다. 대부분의 현상과 사물에 대해 조선사회는 배우는 자세로 부지런히 받아들여 실사구시적인 측면에서 이용후생할 것을 강조하였다.

謝辭

<그림 2>를 도와준 대원여고의 최병문 선생님

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註

- 1) 金明昊, 1988, 燕行錄의 傳統과 熱河日記, 韓國漢文學研究, 燕巖 朴趾源 先生 誕辰250週年 紀念 特輯號 (第11輯), 韓國漢文學研究會, 41.
- 2) '열하일기'의 연행 행로는, '한양(서울)-박천-의주-요양-성경(심양)-거류하-소흥산-북진-고령역-산해관-풍운-옥전-계주-연경(북경)-밀운성-고북구-열하'이다. '요양'은 오늘날 요동별판이라 일컫는 곳이다. '성경'은 오늘날의 '심양'이고, '산해관'은 만리장성과 함께 외적으로부터 중국을 지키기 위해 쌓은 관문이다. '고북구'는 5천년 역사상 최고의 문장이라는 『야출고북구기』의 배경이 된 곳이다. '열하'라는 지명은 강희(康熙) 이후 역대의 청조 황제들이 거쳐했던 여름한철의 별궁 소재지를 가리킨다. 오늘날은 '승덕(承德)'이라 불리는 이곳은 북경에서 약 230km 떨어진 하북성 동북부, 난하(灤河) 지류인 무열하(武烈河) 서안에 위치하고 있는데, 열하라는 원명은 이 무열하 연변에 온천들이 많아 겨울에도 강물이 얼지 않는 데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곳은 황제의 피서지이자 행재소이며, 몽골, 티베트, 이슬람 등 온갖 이질적 문명이 각축했던 곳이다. 천신만고 끝에 연행단이 연경(북경)에 도착했으나 황제(건륭제)가 '열하'에 와 있었으므로 무박나홀의 강행군이 열하까지 연장된다.
- 3) 朴箕錫, 1997, 열하일기를 통해 본 연암의 대청의식과 '호질'의 주제, 국어교육, 한국국어교육 연구회, 328.
- 4) 본 연구의 원문해석은 '나랏말씀7 열하일기', 술(주)을 대본으로 하였다.
- 5) 姜東火華, 1982, 熱河日記의 文學的 研究, 건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미간행, 99-100
- 6) 金明昊, 1989, 熱河日記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미간행, 225
- 7) 李萬烈, 1977, 17·8세기의 史書와 古代史認識 李佐成 外, 1977, 韓國의 歷史認識(下), 創作과 批評社, 333-392
- 8) 높은 관리의 행차 앞에서 위엄을 돋우고 행인을 물러서게 하기 위해 하인이 부르는 소리
- 9) 압록강으로부터 1백 20리 되는 이곳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책문이라 하고, 이곳 사람은 가자문(架子門)이라하며, 중국 사람들은 변문(邊門)이라 부른다.(나랏말씀7 열하일기, 술, 51쪽의 '渡江錄' 6월 28일 기사)

文獻

- 姜東火華, 1982, 熱河日記의 文學的 研究,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고미숙, 2003, 열하일기 : 웃음과 역설의 유쾌한 시

- 공간, 도서출판 그린비.
- 琴章泰, 1987, 韓國實學思想研究, 집문당, 서울.
- 金都煥, 2000, 北伐論과 洪大容의 華夷論, 韓國思想史學.
- 金明昊, 1989, 熱河日記 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金文鎔, 1995, 洪大容의 實學思想에 관한 研究, 고려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박사학위논문, 미간행.
- 金仁圭, 1996, 朝鮮後期 華夷論의 變容과 그 意義 : 儒敎思想과 東西交涉, 道和柳茂相先生華甲紀念論文集刊行委員會編.
- 김명호, 1990, 열하일기 연구, 창작과비평사.
- 김아리, 2000, 老稼齋燕行日記의 글쓰기 방식, 韓國漢文學研究 25, 韓國漢文學會.
- 김영호, 2002, 조선의 협객 백동수, 푸른역사.
- 김인규, 2000, 북학사상의 철학적 기반과 근대적 성격, 도서출판 다운샘.
- 金泰永, 1998, 한국의 탐구 : 실학의 국가개혁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태준 해설, 2001, 열하일기 한글본 출현의 뜻, 민족문화사연구.
- 로버트 템플, 1993, 그림으로 보는 중국의 과학과 기술(과학세대 譯), 1993, 도서출판 까치, 서울.
- 민족문화추진회, 1968, 熱河日記 1, 2.
- 朴箕錫, 1997, 熱河日記를 통해 본 燕巖의 對淸意識과 ‘虎叱’의 주제, 국어교육.
- 朴性淳, 1998, 朝鮮後期の 對淸認識과 ‘北學論’의 意味, 史學志 31.
- 박성래, 1982, 韓國科學史(KBS TV 공개대학시리즈 ⑤), (株)韓國放送事業團, 서울.
- 박성래, 1994, 한국인의 과학정신, 평민사, 서울.
- 박제가, 2000, 궁핍한 날의 벗(안대회 역), 대학사.
- 박종채, 1998, 나의 아버지 박지원, 박희명 옮김, 들배개, 서울.
- 박충석·유근호, 1980, 조선조의 정치사상, 평화출판사.
- 유봉학, 1982, 北學思想의 形成과 그 性格 : 滄軒 洪大容과 燕巖 朴趾源을 中心으로, 韓國史論 8.
- 劉奉學, 1995, 燕巖一派 北學思想研究, 一志社, 서울.
- 이덕무, 2000, 한서이불과 논어병풍, 정민 편역, 열림원, 서울.
- 李錫浩·李鐵柱·林禎堡·崔林淳 譯, 1985, 中國의 科學과 文明(조셉 니담 著), 을유문화사, 서울.
- 임형택, 2000, 실사구시의 한국학, 창작과 비평사, 서울.
- 金炳機 編著, 1982, 韓國科學史, 二友出版社, 서울.
- 金相連·朴星來·金容雲·李春寧·洪文和·宋相庸·尹龍二·南天祐·張起仁, 1984, 이야기韓國科學史, 서울, 서울 신문사.
- 전상운, 2000, 한국과학사, (주)사이언스북스, 서울.
- 전영권, 2002, 택리지의 현대지형학적 해석과 실용화방안, 한국지역지리학회지, 8(2), 256-269.
- 趙誠乙, 1997, 朝鮮後期 華夷論의 變化, 한국사연구회 편.
- 朱七星, 1996, 실학과의 철학사상, 예문서원, 서울.
- 愼鋪度, 1997, 洪大容의 社會身分觀과 社會身分制度 改革思想, 朝鮮後期 實學派의 社會思想研究, 지식산업사.
- 車溶柱, 1984, 燕巖研究, 啓明大學校出版部, 대구.
- 최영진·손병욱·김장태·김용현·이종란·신원봉·김병규·이원순·신해순, 2000, 조선말 실학자 최한기의 철학과 사상, 철학과 현실사, 서울.
- 한국철학사연구회, 2000, 한국실학사상사,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 洪以燮, 1946, 朝鮮科學史, 正音社, 서울.

(접수 : 2004. 6. 21, 채택 : 2004. 8. 18)